

노인가계 유형별 경제구조 분석

Economic Structure Analysis According to Old Age Household Type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강사 한수진*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석사 서지수**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Lecturer : Han, Su-Ji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Master : Seo, Ji-Soo

<Abstract>

This research performs a multi comparison between the age of old households and the economic structure according to accommodation type as well as analyzing the economical structural difference of each type based on the features of aged households. The paper classified aged households into 3 groups according to age distribution. The economic structure analysis according to the age of old households and accommodation type was shown as follow: First, the economical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the age of old households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labor, business, property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according to the age of each sample group. However, the non-business income and liabilitie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in the analysis of different economic earnings and initial expenses of middle-aged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ge distribution group showed a disparity in the total, labor, business, property,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according to the age of each sample group. However, aged households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otal, labor, business and transfer income variables. Third,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the expense provision and size of consumption,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expense variables of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Fourth,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 in the size of consumption expense, the initial and middle-aged households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consumption expense variables. However, the analysis of aged households has shown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total consumption, food, dining out, electricity, water, furniture, kitchen supplies, clothing, shoe, education, culture, entertainment,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 variables. The study found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expense for hygienics that did not appear in the initial and middle-aged households.

▲주요어(Key Words) : 노인가계(old age household), 가계유형(households type), 경제구조(economic structure)

* 주 저 자 : 한 수 진(E-mail : sjhan@sungshin.ac.kr)

**교신저자 : 서 지 수(E-mail : jisu4542@nate.com)

I. 서 론

현대사회는 노화와 장수에 대한 의학적, 생리적 규명과 함께 무병장수와 같은 수명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빠른 팽창은 노인부양의 문제를 야기 시키며, 노인은 삶의 주인으로서 주체 의식과 능력의 부재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 후기 노인의 증가는 연금 수급기간의 연장, 노인 의료비의 증대, 노인부양의 부담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요즘은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조선희·장지현, 2002).

통계청의 2004년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 인구의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을 조사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40.1%로 나타났다. 남녀별 비율을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는 경우는 남자가 72.1% 여자가 44.2%로 나타났으며, '자녀 또는 친척'에게 의지하는 경우는 여자가 51.0% 남자가 2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에 대한 '만족'은 10.4%, '보통'은 37.4%, '불만족'은 52.2%로 나타나 1998년 경제위기 이후인 1999년보다도 '만족'과 '보통'은 각각 0.2%p, 3.3%p 낮아진 반면 '불만족'은 3.5%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소득 만족 수준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4).

유우정(2006)은 55세 이상 노인가구의 36%는 매달 소득의 9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소득이 중단될 경우 1개월 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는 10 가구 중 3가구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제시 하였다. 또 월평균 가계소득 대비 월평균보험료 비중을 뜻하는 위험대비지표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계는 8.93%에 불과, 전체 노인가구의 91% 이상이 경제적 위험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기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가계의 경제구조에 대한 제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노인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해 주는 소득 및 소비지출의 흐름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노인가계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가계내에서 보여지는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노인을 단순히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Quinn, 1987). 이러한 주장은 노인가계내에서도 가계의 특성에 따라 소득과 소비지출패턴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성영애·양세정, 1997).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비교한 연구(문숙재 등, 1996; 성영애·양세정 1997; 임정민·김윤희, 2000; 김영숙, 2002)와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

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연구(이희숙·신상미, 2003; 김연정, 1997) 등이 있으며,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를 불평등도를 중심으로 한 분석연구(성지미·이윤정, 2001)와 재무계획 수립 및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상태 분석(김순미, 1998)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으나 노인가계를 동질적 집단이 아닌 이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노인가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과 동거유형별로 노인가계를 구분하여 경제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노인가계의 다양한 경제구조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노인가계를 연령에 따라 초기노인집단(60~64세), 중기노인집단(65~70세), 후기노인집단(70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동거유형에 따라 노인부부만 구성된 노인부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와 친척으로 구성된 친척노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으로 구성된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으로 구성된 남성노인가계의 6개 집단으로 노인가계를 분류하여 경제구조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구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경제상태를 결정짓는 소득, 부채, 소비·지출에 관련된 경제지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온 노인가계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경제구조를 분석한 연구와는 달리 노인가계를 이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연령과 동거유형별로 노인가계를 구분하여 경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노인가계의 다양한 경제구조 특성을 파악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표성 있는 전국규모의 자료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앞으로 노년기를 맞게 될 중·장년층에게 노후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적차원에서의 연금 및 세제지원책과 관련된 경제적 수급정책에 대한 유용한 기초정보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에 더불어 올바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미래 노인가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가계의 정의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적

인 과정이라고 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통합하는 능력이 결핍된 사람”으로 정의 한다(한국노년학회, www.tkgs.or.kr). 연령에 따른 노인의 구분을 살펴보면, UN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전체인구대비 65세 인구가 7%에서 14%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 전체인구대비 65세 인구가 14%에서 20%미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의 노인20%이상)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은 생리적·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출생에서 현재까지의 기간을 산술적으로 산출한 역 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해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노인으로 규정한다. 역 연령에 의한 규정은 입법적, 행정적인 편의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였다(송순영, 1999). 또한 Brody는 60~64세 노인을 연소노인(young-old), 65~74세 노인을 중고령노인(middle-old), 그리고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으로 분류하였다(장인협·최성재, 2003; 권중돈, 200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으로 볼 때 노인은 60세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로연금제도나 각종 경로우대제도 또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은호(2007)는 노인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지역과 사회문화에 따라 상이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60세를 전후한 시기로 보는데, 이는 대체로 일반기업체의 경우 퇴직연령을 55세로, 공무원의 경우 60세로 정하고 있는 점 및 전통적으로 60세가 환갑인 점 등에서 사회적으로 노령기에 접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도상에서 노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제56조제1항), 노령연금지급금액도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다.(제57조) “따라서 위법에서는 ‘노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인구,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각 정의하고 있다(법제2조, 동법시행령제2조).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아동, 60세 이상의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

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제4조)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인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에서 ‘65세 이상인 자’는 ‘노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www.lawnb.com).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구분을 살펴보면 양세정·성영애(2001), 김영숙(2002), 박진영(2007), 오찬욱 등(2000)은 노인가구를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순희·김현정(2001), 이영숙(2007), 김순미(1998), 문숙재 등(1996), 은 노인가구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제도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흔히 사회통계조사를 함에 있어 60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나누는 기준을 삼고 있으며(통계청, 2005), 사회적으로도 퇴직 정년을 정하는 기준으로 60세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고철기 등, 1992)에 따라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계를 노인가계로 정의하고, 또한 역연령에 따른 구분과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70세를 고희(古稀)라 칭한다는 점에 따라 60~64세 노인가구주 가계를 ‘초기노인가계’, 65~70세 노인가구주 가계를 ‘중기노인가계’, 70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계를 ‘후기노인가계’로 정의하였다.

2.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을 통해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재정적준비 및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재정상태분석은 일반적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구조 등의 절대액에 기초한 방법과 타인이나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의한 소득분배 분포를 통한 상대적 기준의 방법이 있다(강이주, 1999).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원은 가구의 경제복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평가 지표는 소득이지만 어떤 소득을 지표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며, 경제적 지위의 유지능력을 과소 혹은 과대평가할 수 있다. 노인가구의 주된 노후소득원천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지만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의 계층간 분포가 불평등하고 노인집단간 경제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권문일, 1997). 서구 선진국에서 중요소득원인 재산소득은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노후소득원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가구는 주로 정기적 소득원을 상실하였을 때, 근로소득외의 기타소득원천에서 이전소득이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

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현실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책의 기초적 사회안전망인 공적부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노인가구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소득액수의 변동이 심하므로 소득만으로 노인가구의 경제구조를 측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강이주 등, 1999).

통계청(2004)은 가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로서 각종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로 구성된 10대 비목 지출의 합계라 규정하였으며, 황은애·이승신(1999)은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패턴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소비지출을 9대비목인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로 지정하였다.

노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시 소비지출 분석은 경제상태 및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이것으로서 가구의 소비양상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소비지출은 실질적인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안정적인 지표로서, 가구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Friedman, 1957; Garner, 1987; 김연정 1998년 재인용). 또한 소비지출을 비목별로 분석함으로써 가구의 소비범주에 따른 지출분포정도 및 구체적인 가계구조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3. 노인가계의 경제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가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예측되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노인가계를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정영숙, 2000; 김영숙, 2002에서 재인용).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경제구조를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노인의 취업유무, 연령, 동거집단에 따라 노인가계를 분리한 집단간의 비교 분석연구가 시도 되어 왔다.

양세정, 성영애(2001)는 통계청이 1996년에 실시한 가구 소비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계를 취업여부별 및 단독가계, 부부가계, 자녀동거가계 등 가구구성형태별로 나누어 가계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의 소득규모 및 원천을 비교한 수치에서는 비노인가계보다 노인가계의 총가계소득이 유의미하게 더 적었으며, 소득원천별 규모를 살펴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업소득은 더 적은 반면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비노인가계가 월평균 413,966원을 지출함으로써 노인가계의 390,283원에 비해

많았다. 노인가계는 식료품비 지출을 많이 하는 반면, 비노인가계는 외식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를 비교한 경우에는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득수준은 취업노인가계의 반도 못 미치는 40.2%수준이었으며, 취업노인가계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규모가 비취업노인가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의 비교에서는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는 총소비지출규모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거비와 보건의료비를 제외 하고 모든 비목에서 취업가계의 지출규모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독노인가계, 부부노인가계, 자녀동거노인가계의 비교에서는 가구구성에 따른 노인가계의 소득원천별 소득규모 및 구조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세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선형과 김근홍(2003)은 1999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부부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부부가계, 건강상태, 취업여부, 생활수준에 따른 가계지출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집단 모두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와 취업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이 좋은 가계의 경우 식료품비와 주거비,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건강이 좋지 않은 가계의 경우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부부가계는 전제도시 근로자가계들에 비하여 교육비, 교통통신비,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적고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Harrison(1986)은 1984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층의 연령을 65~74세 집단과 75세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의 특성과 소비패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에 따른 소비패턴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집단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로 비슷하였으며 외식비, 교통비, 오락비, 보험비, 의복비는 65~74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비와 의료비는 75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Hitschler(1993)는 Consumer Expenditure Survey (CES)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연령을 65~74세 집단과 75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 1980년과 1990년 10년 동안의 노인가계 소비지출규모와 소비패턴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집단 모두 주거비의 비율이 1980년과 1990년 모두 크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비, 교통비, 의료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보다는 1990년대의 소비지출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포괄하는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연령별, 동거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들 집단을 비교하고자 한다. 노인가계의 연령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60~64세의 초기노인가계, 65~70세의 중기노인가계, 70세 이상의 후기노인가계로 분류하였으며,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차이가 노인가계 자신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 다른 가구원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노인가구를 동거유형에 따른 6개 집단으로 세분화 하여 분류하였다<표 1>.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노인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라 가계 경제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이 2004년에 실시한 가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주 가계를 추출하여, 12,143 가계가 연구대상으로 표집 되었다. 본 연구에서 60세 이상을 노인가계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회통계조사를 함에 있어 60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나누는 기준을 삼고 있으며(통계청,

2005) 사회적으로도 퇴직 정년을 정하는 기준으로 60세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고철기 등, 1992)이 있기 때문이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4년 가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경제적 변수와 소비지출 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노인가계 가구주 연령대에 따른 초기노인집단(60~64세), 중기노인집단(65~70세), 후기노인집단(70세 이상) 과 동거유형에 따라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와 친인척으로 구성된 친척노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으로 구성된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으로 구성된 남성노인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구조와 관련한 소득, 대출액, 소비지출 변수를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통계청의 2004년 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한 본 연구는 분석목적에 맞게 SPSS WIN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행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가계 노인가계의 연령대와 동거유형별에 따른 경제구조현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고, 보다 정확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1> 노인가계의 동거유형

동거유형	구분	동거유형 구분
노인부부가계	60세 이상 가구원으로써 가구원 수가 2명인 노인부부만이 사는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인 자녀만이 함께 사는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노인부부 +기혼자녀, 노인부부 + 기혼자녀 + 손자녀, 노인부부 +기혼자녀 + 미혼자녀 +손자녀, 이상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가계	
친척노부부가계	노인부부가 노인부부의 부모, 조부모, 미혼인 형제자매, 기타친인척등과 함께 사는 경우로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인 가계 (자녀와 손자녀는 제외함)	
여성노인가계	여성노인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경우로 가구원 수가 2명 이상인 가계 (예: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 가구주 + 자녀친척손자녀...)	
남성노인가계	남성노인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경우로 가구원 수가 2명 이상인 가계 (예: 배우자가 없는 남성노인 가구주 + 자녀친척손자녀...)	

II.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가계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의 구성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60세 이상인 노인가계는 총 12,143 가구로 그 중 60~64세에 해당하는 초기노인가계가 총 4,926가구로 전체 노인가구 중 40.6%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65~69세인 중기노인가계가 30.2%, 70세 이상인 후기노인가계가 29.2%를 차지하여 역연령에 따른 고른 분포를 보였다. 동거 유형별 노인가계의 빈도를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계가 55%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로 17%를 차지하였으며, 여성노인가계가 14%, 노인자녀동거가계가 11%, 친척노인부부가계가 3%, 남성노인가계가 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가계의 연령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구주 성별의 경우 전체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79%로 세 집단 모두 남성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다수의 가구주 성별이 남성임을 알 수 있다.

학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집단별 학력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중졸이하가 60.5%로 과반수를 넘는 분포를 보여 노인가계의 경우 대다수가 교육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대졸 이상의 분포는 비교적 연령이 낮은 초기노인가계 집단이 5.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의 비율이 전체가계의 4.2%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당히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이들 노인연령 집단별 학력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주택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주택소유율이 80.7%에 달해 대다수의 노인가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노인가계가 주택소유에 따른 재산소득을 취득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노인연령 집단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조사대상 가계의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였으며,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다.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분석 결과 성별, 교육수준, 직업, 주택소유여부 모두 동거유형에

<표 2> 조사대상가계의 구성비

(n=12,143)

가계유형	연령	연령			합계(%)
		초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	
노인부부가계		2,220 (18.3)	1,987 (16.4)	2,401 (19.8)	6,608 (54.5)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1,277 (10.5)	521 (4.3)	213 (1.8)	2,011 (16.6)
노인자녀 동거가계		532 (4.4)	384 (3.2)	369 (3.0)	1,285 (10.6)
친척노인부부가계		186 (1.5)	117 (1.0)	17 (0.1)	320 (2.6)
여성노인가계		565 (4.7)	587 (4.8)	483 (4.0)	1,635 (13.5)
남성노인가계		146 (1.2)	75 (0.6)	63 (0.5)	284 (2.3)
전체가계		4,926 (40.6)	3,671 (30.2)	3,546 (29.2)	12,143 (100)

<표 3> 조사대상가계의 연령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검증

(n=12,143, 단위: 빈도, %)

변수	구분	초기노인가계 (60~64세)	중기노인가계 (65~69세)	후기노인가계 (70세 이상)	카이(X ²)값
가구주 성별	여 자	1,072(8.8)	810(6.7)	674(5.6)	12.681**
	남 자	3,854(31.7)	2,861(23.6)	2,872(23.7)	
교육수준	중졸 이하	2,862(23.6)	2,112(17.4)	2,363(19.5)	160.723***
	고졸 이하	1,362(11.2)	1,007(8.3)	651(5.4)	
	초·대졸 이상	689(5.7)	518(4.3)	476(3.9)	
직업	전문직	322(2.7)	116(1.0)	60(0.5)	134.897***
	비전문직	4,604(37.9)	3,555(29.3)	3,486(28.7)	
주택소유	소유	4,164(34.3)	2,866(23.6)	2,773(22.8)	77.009***
	비소유	762(6.3)	805(6.6)	773(6.4)	

*p<.05, **p<.01, ***p<.001

<표 4> 조사대상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검증

(단위: 빈도, %)

연령집단	변수	구분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노인부부 가계	여성노인 가계	남성노인 가계	카이(X ²)값	
초기 노인가계 n=4,926	가구주 성별	여 자	356(7.2)	93(1.9)	52(1.1)	6(0.1)	565(1.5)	0(.0)	2354.301***	
		남 자	1,864(37.8)	1,184(24.0)	480(9.7)	180(3.7)	0(.0)	146(3.0)		
	교육수준	중 졸	1,318(26.8)	642(13.0)	329(6.7)	58(1.2)	448(9.1)	67(1.4)		234.504***
		고 졸	580(11.8)	435(8.8)	126(2.6)	76(1.5)	91(1.8)	54(1.1)		
		초·대졸	309(6.3)	200(4.1)	77(1.6)	52(1.1)	26(0.5)	25(0.5)		
직업	전문직	184(3.7)	80(1.6)	30(0.6)	0(.0)	26(0.5)	2(.0)	34.855***		
	비전문직	2,036(41.3)	1,197(24.3)	502(10.2)	186(3.8)	539(10.9)	144(2.9)			
주택소유	소유	1,857(37.7)	1,092(22.2)	500(10.2)	160(3.2)	425(8.6)	130(2.6)	78.664***		
	비소유	363(7.4)	185(3.8)	32(0.6)	26(0.5)	140(2.8)	16(0.3)			
중기 노인가계 n=3,671	가구주 성별	여 자	161(4.4)	31(0.8)	31(0.8)	0(.0)	587(16.0)	0(.0)	2475.347***	
		남 자	1,826(49.7)	490(13.3)	353(9.6)	117(3.2)	0(.0)	75(2.0)		
	교육수준	중 졸	1,029(28.0)	279(7.6)	212(5.8)	50(0.4)	507(13.8)	35(1.0)		329.622***
		고 졸	611(16.6)	176(4.8)	117(3.2)	48(1.3)	38(1.0)	17(0.5)		
	초·대졸	331(9.0)	66(1.8)	55(1.5)	19(0.5)	24(0.7)	23(0.6)			
직업	전문직	87(2.4)	23(0.6)	6(0.2)	0(.0)	0(.0)	0(.0)	40.943***		
	비전문직	1,900(51.8)	498(13.6)	378(10.3)	117(3.2)	587(16.0)	75(2.0)			
주택소유	소유	1,555(42.4)	456(12.4)	335(9.1)	97(2.6)	393(10.7)	30(0.8)	153.585***		
	비소유	432(11.8)	65(1.8)	49(1.3)	20(0.5)	194(5.3)	45(1.2)			
후기 노인가계 n=3,546	가구주 성별	여 자	187(5.3)	0(.0)	4(0.1)	0(.0)	483(13.6)	0(.0)	2400.190***	
		남 자	2,214(62.4)	213(6.0)	365(10.3)	17(0.5)	0(.0)	63(1.8)		
	교육수준	무 학	43(1.2)	13(0.4)	0(.0)	0(.0)	0(.0)	0(.0)		434.440***
		중 졸	1,507(42.5)	116(3.3)	185(5.2)	17(0.5)	478(13.5)	60(1.7)		
	고 졸	515(14.5)	17(0.5)	111(3.1)	0(.0)	5(0.1)	3(0.1)			
	초·대졸	336(9.5)	67(1.9)	73(2.1)	0(.0)	0(.0)	0(.0)			
직업	전문직	74(1.3)	0(.0)	13(0.4)	0(.0)	0(.0)	0(.0)	21.810***		
	비전문직	2,354(66.4)	213(6.0)	356(10.0)	17(0.5)	483(13.6)	63(1.8)			
주택소유	소유	1,916(54.0)	183(5.2)	309(8.7)	17(0.5)	307(8.7)	41(1.2)	89.506***		
	비소유	485(13.7)	30(0.8)	60(1.7)	0(.0)	176(5.0)	22(0.6)			

*p<.05, **p<.01, ***p<.001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가구주의 성별을 제시한 것으로 남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동거유형 구분에 따른 6개 집단 모두 중졸이하의 학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의 학력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대졸이상의 학력비율이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부부가계의 학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의 경우 대부분의 가계가 무직을 포함한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노인부부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척노인부부 가계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분석 결과 성별, 교육수준, 직업, 주택소유여부 모두 동거유형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성별은 가구주의

성별을 제시한 것으로 초기노인 가계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동거유형 구분에 따른 6개 집단 모두 중졸이하의 학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의 학력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대졸이상의 학력비율이 노인부부 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학의 경우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대부분의 가계가 무직을 포함한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노인부부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척노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계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분석 결과 성별, 교육수준, 직업, 주택소유여부 모두 동거유형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중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성별은 가

구주의 성별을 제시한 것으로 초기, 중기노인 가계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와 친척노인부부가계의 경우 여성노인가구주의 빈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동거유형 구분에 따른 6개 집단 모두 중졸이하의 학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의 학력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졸이상의 학력비율이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척노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계의 경우 초기, 중기노인가계의 경우와는 달리 초·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대부분의 가계가 무직을 포함한 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노인부부가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모두 종합해본 결과 노인가계는 전반적으로 중졸이하의 학력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초·대졸이상의 경우 노인부부가계의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사회적 자립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직업의 경우 무직을 포함한 비전문직 종사자가 전문직 종사자보다 모든 집단에서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주택소유는 초기, 중기, 후기 동거유형별 가계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으며, 노인부부가계의 주택소유율이 초기, 중기, 후기 집단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주택소유율은 부동산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와 같은 재산소득의 취득을 겨냥 할 수 있다. 또한, 동거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계에서는 교육수준, 전문직 비율, 주택소유 여부 등이 다른 유형의 가계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가계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주택소유율이 높을수록 타 가구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자립도가 높음을 유추 할 수 있다.

3. 조사대상가계의 경제구조

조사대상 가계의 연령과, 동거유형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득과 부채유입액, 지출비목별 소비지출변수를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해당변수를 소유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경제구조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가계의 연령별 경제수입 차이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경제수입 차이 검증의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가계의 경제수입의 차이

<표 5> 조사대상가계의 연령별 경제수입 차이검증

(단위: 천원)

변 수	초기노인가계 (60~64세) n=4,926	중기노인가계 (65~69세) n=3,671	후기노인가계 (70세 이상) n=3,546	합 계	F 값
총소득 ¹⁾	n=2,094 2,526 c	n=988 1,854 b	n=312 1,096 a	n=3,394 2,199	105.547**
근로소득	n=2,076 1,954 c	n=982 1,337 b	n=293 647 c	n=3,351 1,659	133.959**
사업소득	n=440 459 c	n=219 679 b	n=69 194 a	n=728 500	12.700**
재산소득	n= 240 700 a	n= 109 395 a	n= 33 640 a	n=382 608	4.478*
이전소득	n=1,172 652 b	n=640 427 a	n=225 455 a	n=2,037 560	19.499**
비경상소득	n=1221 317 a	n=557 256 a	n=177 211 a	n=1955 290	1.895
대출액 ²⁾	n=590 790 a	n=200 591 a	n=33 321 a	n=823 723	0.597

*p<.05, **p<.01,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소득과 대출액은 월평균 수치임.

주 1)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대출액=(부동산관계빌린돈+월부 및 외상+기타빌린돈)

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관련변수와 대출액 변수로 나누어 변수를 소유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노인연령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득은 초기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소득과 비경상소득, 부채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초기에서 후기 집단으로 갈수록 소득원이 줄어드는 것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역할기능의 약화로 인한 현상으로 노인가계의 적극적인 노후준비 필요성이 요구된다. 근로소득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총 평균 1,659천원으로 다른 소득 변수들 보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 노인가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지만, 전체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1/3 수준으로 그 수가 적어 노인가계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한 근로소득의 증대 방안이 요구된다. 사업소득은 한 달 평균 679천원으로 나타난 중기노인가계에서 그 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초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소득은 초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나 역 연령에 따른 고른 분포를 나타내지 않았다. 재산소득의 경우 세 집단의 월평균 합계액이 608천원으로 소득원천별 규모로 보았을 때 근로소득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한 소득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전소득은 초기노인가계가 652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원천별 규모로 보았을 때 이전소득의 월평균 합계액이 560천원으로 재산소득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여 노인가계에서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득변수와 대출액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가계의 동거유형별 경제수입 차이

노인가계의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별 경제구조 특성 차이검증의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가계의 경제구조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관련변수와 대출액변수로 나누었으며, 변수를 소유한 가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입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득은 친척노인부부가계가 월 평균 4,11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노인자녀동거가계, 남성노인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총소득을 나타냈다. 친척노인부부가계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총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가구원이 아닌 타가구원으로 부터의 소득지원이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으며, 노인부부가계에서 총소득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가계들보다 경제활동인구 수가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부부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은 친척노인부부가계가 월 평균 3,13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근로소득을 나타냈다. 사업소득은 남성노인가계가 월 평균 1,606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친척노인부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사업소득을 나타냈다. 재산소득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척노인부부,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적은 재산소득을 나타냈다.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가계, 친척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가계에서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대출액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총소득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월 평균 총소득 3,04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친척노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계, 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적은 총소득을 나타냈다. 근로소득은 월 평균 2,649천원인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혼자녀와 미혼자녀, 친척노인부부가계, 남성노인가계, 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낮은 근로소득을 나타냈다. 사업소득은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업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노인가계 수가 단 2 가구로 극 소수인 경우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노인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와

<표 6> 조사대상가계의 동거유형별 경제수입 차이검증

(단위: 천원)

연령집단	변 수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노인부부 가계	여성노인 가계	남성노인 가계	합계	F 값
초기 노인가계	총소득 ¹⁾	n=868 1,770 a	n=586 3,263 c	n=267 3,256 c	n=60 4,115 d	n=244 2,270 b	n=69 2,483 b	n=2,094 2,526	55.056***
	근로소득	n=855 1,312 a	n=583 2,610 c	n=265 2,356 c	n=60 3,135 d	n=244 1,949 b	n=69 1,820 b	n=2,076 1,954	57.174***
	사업소득	n=164 154 a	n=147 390 a	n=76 1,214 b	n=7 436 a	n=35 179 a	n=11 1,606 c	n=440 459	38.061***
	재산소득	n=100 430 ab	n=56 1,317 c	n=36 583 ab	n=26 982 bc	n=11 221 a	n=11 219 a	n=240 700	7.064***
	이전소득	n=504 614 ab	n=312 794 bc	n=163 612 ab	n=42 545 ab	n=115 415 a	n=36 1,025 c	n=1,172 652	5.197***
	비경상소득	n=564 276 a	n=314 402 a	n=158 344 a	n=35 447 a	n=122 246 a	n=28 165 a	n=1,221 317	1.039
	대출액 ²⁾	n=205 741 a	n=202 678 a	n=74 1,255 a	n=28 1,606 a	n=75 507 a	n=6 252 a	n=590 790	0.812
	총소득 ¹⁾	n=446 1,338 a	n=212 3,043 d	n=108 2,464 c	n=37 1,861 b	n=139 1,403 a	n=46 1,309 a	n=988 1,854	80.609***
중기 노인가계	근로소득	n=440 920 ab	n=212 2,649 d	n=108 1,307 c	n=37 1,231 c	n=139 765 a	n=46 1,158 bc	n=982 1,337	138.422***
	사업소득	n=68 99 a	n=56 475 ab	n=50 1,227 bc	n=2 90 a	n=41 1,243 bc	n=2 1,400 c	n=219 679	26.202***
	재산소득	n=41 426 b	n=11 528 b	n=17 516 b	n=27 359 b	n=13 101 a	.	n=109 395	3.027*
	이전소득	n=310 465 b	n=100 268 ab	n=68 199 c	n=23 308 ab	n=68 218 ab	n=17 116 a	n=640 427	8.209***
	비경상소득	n=271 264 a	n=110 306 a	n=68 199 a	n=23 308 a	n=68 218 a	n=17 116 a	n=557 256	1.004
	대출액 ²⁾	n=31 414 a	n=104 589 b	n=23 743 b	n=1 100 a	n=30 831 a	n=11 172 a	n=200 591	0.158
	총소득 ¹⁾	n=171 946 a	n=54 1,447 b	n=42 1,356 b	-	n=45 1,004 a	-	n=312 1,096	8.996***
	근로소득	n=159 527 a	n=54 1,085 b	n=35 669 a	-	n=45 530 a	-	n=293 647	16.666***
후기 노인가계	사업소득	n=48 45 a	n=4 1,000 c	n=15 421 b	-	n=2 450 b	-	n=69 194	19.344***
	재산소득	n=17 611 a	n=8 650 a	n=7 792 a	-	n=1 500 a	-	n=33 640	1.170
	이전소득	n=127 451 b	n=23 172 a	n=38 553 b	-	n=37 546 b	-	n=225 455	3.403*
	비경상소득	n=90 221 a	n=32 211 a	n=26 235 a	-	n=29 155 a	-	n=177 211	0.532
	대출액 ²⁾	n=14 349 ab	n=6 111 a	n=8 181 a	-	n=5 720 b	-	n=33 321	2.455

*p<.05, **p<.01,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소득과 대출액은 월평균 수치임

주1)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대출액=(부동산관계빌린돈+월부 및 외상+기타빌린돈)

미혼자녀가계, 노인부부가계, 친척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가계, 친척노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남성노인가계에서는 재산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계, 친척노인부부가계, 여성노인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적은 이전소득을 나타냈다.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재산소득과 비경상소득, 대출액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후기노인가계의 경우 소득변수와 대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친척노인부부가계와 남성노인가계는 분석에서 제외시켜 연구하였다.

총소득의 경우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노인가계 총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가 월 평균 1,08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소득과 마찬가지로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근로소득을 나타냈으며 이 또한 초기노인가계에서의 노인부부가계의 경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사업소득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노인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자녀동거가계, 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소득 규모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가구원이 아닌 타가구원으로 부터의 소득지원이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반면 노인부부가계는 소득 규모가 대부분의 변수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가계들보다 경제활동 인구 수가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구성원으로 부터의 소득 지원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부부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노인가계와 자녀동거노인가계의 소득원천별 규모 및 구조를 비교한 양세정과 성영애(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3) 조사대상가계의 연령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

노인 연령에 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노인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의 규모 분포를 보면, 식료품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교육비, 외식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지출 규모를 보였다.

총소비지출은 초기노인가계에서 월 평균 1,631,45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이 초기노인가계에서 후기노인가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생애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식료품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소비지출에서도 초기노인가계에서의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기노인가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식료품비의 경우 전체 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지출규모를 나타내어 노인가계의 Engel계수가 높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성영애와 양세정(1997), 김연정(1998), 이희숙과 신상미(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육비의 경우 초기노인가계에서 월평균 220천원으로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경우 전체 노인가계에서 비교적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에서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사교육비 증가현상과 고학력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보건의료비 또한 노인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인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원의 높은 연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인가계에서의 의료비 부담 정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한 이희숙과 신상미(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4) 조사대상가계의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

조사대상가계의 동거유형에 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초기노인가계의 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

<표 7> 조사대상가계의 연령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단위: 천원)

변 수	초기노인가계 (60~64세)	중기노인가계 (65~69세)	후기노인가계 (70세 이상)	합 계	F 값
총소비지출	n=4,926 1,631 c	n=3,671 1,356 b	n=3,546 989 a	n=12,143 1,360	189.958***
식료품	n=4,926 479 c	n=3,671 405 b	n=3,546 307 a	n=12,143 406	325.484***
외 식	n=4,477 190 c	n=3,117 143 b	n=2,547 79 a	n=10,141 148	259.313***
주 거	n=2,604 100 a	n=1,821 103 a	n=1,525 101 a	n=5,950 101	0.036
광열수도	n=4,886 98 c	n=3,632 86 b	n=3,524 73 a	n=12,042 87	102.812***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n=4,260 69 b	n=3,086 57 ab	n=2,785 46 a	n=10,131 59	5.787**
피복 및 신발	n=3,566 103 c	n=2,333 87 b	n=1,964 62 a	n=7,863 62	27.958***
보건의료	n=3,985 130 a	n=3,114 143 a	n=3,131 138 a	n=10,230 137	1.112
교 육	n=934 220 b	n=791 161 a	n=660 171 ab	n=2,385 187	3.357*
교양오락	n=4,886 75 c	n=3,631 56 b	n=3,448 35 a	n=11,965 58	38.222***
교통통신	n=4,925 279 c	n=3,664 189 b	n=3,542 100 a	n=12,131 199	114.522***
기 타	n=4,880 368 c	n=3,629 313 b	n=3,452 211 a	n=11,961 306	38.762***

*p<.05, **p<.01,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비지출의 경우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에서 월 평균 2,15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척노인부부가계, 노인자녀동거가계, 남성노인가계, 노인부부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규모를 나타냈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은 소비지출 규모를 보여 노인가계의 앵겔지수가 높음을 시사하였으며 그 중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계에서 가장 많은 식료품비를 지출하였다. 외식비의 경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주

거비의 경우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열수도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 및 신발비와 보건의료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는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은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출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계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보건의료, 주거, 외식,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계는 가구원 수가 2명인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표 8> 조사대상가계의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 차이검증

(단위: 천원)

연령집단	변 수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노인부부 가계	여성노인 가계	남성노인 가계	합 계	F 값
초기 노인가계	총소비지출	n=2,220 1,326 a	n=1,277 2,158 d	n=532 1,838 bc	n=186 1,967 cd	n=565 1,324 a	n=146 1,662 b	n=4,926 1,631	42.586***
	식료품	n=2,220 366 a	n=1,277 642 d	n=532 598 cd	n=186 517 b	n=565 402 a	n=146 579 c	n=4,926 479	131.644***
	외 식	n=1,880 108 a	n=1,245 299 d	n=505 220 c	n=178 197 c	n=527 159 b	n=142 326 d	n=4,477 190	116.273***
	주 거	n=1,241 109 a	n=601 96 a	n=303 91 a	n=82 91 a	n=293 95 a	n=84 65 a	n=2,604 100	0.348
	광열수도	n=2,201 83 a	n=1,271 113 bc	n=524 123 c	n=186 121 c	n=560 84 a	n=144 108 b	n=4,886 98	40.121***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n=1,879 56 a	n=1,122 79 ab	n=495 117 b	n=157 66 ab	n=470 53 a	n=137 41 a	n=4,260 69	2.889*
	피복 및 신발	n=1,434 77 a	n=1,022 138 b	n=419 102 ab	n=131 100 ab	n=456 107 ab	n=104 88 a	n=3,566 103	8.527***
	보건의료	n=1,795 133 a	n=1,033 146 a	n=426 117 a	n=173 132 a	n=451 109 a	n=107 103 a	n=3,985 130	0.653
	교 육	n=146 38 a	n=247 381 bc	n=264 136 a	n=60 494 c	n=197 204 ab	n=20 13 a	n=934 220	9.668***
	교양오락	n=2,189 57 a	n=1,276 113 b	n=525 86 ab	n=186 52 a	n=564 57 a	n=146 68 a	n=4,886 75	9.361***
	교통통신	n=2,219 215 ab	n=1,277 402 c	n=532 288 abc	n=186 325 bc	n=565 203 a	n=146 383 c	n=4,925 279	12.003***
	기 타	n=2,196 338 a	n=1,273 472 b	n=520 348 a	n=186 501 b	n=559 240 a	n=146 305 a	n=4,880 368	8.808***
중기 노인가계	총소비지출	n=1,987 1,143 a	n=521 1,741 bc	n=384 1,955 c	n=117 1,738 bc	n=587 1,243 a	n=75 1,562 b	n=3,671 1,356	41.657***
	식료품	n=1,987 347 a	n=521 550 c	n=384 551 c	n=117 487 b	n=587 365 a	n=75 395 a	n=3,671 405	71.223***
	외 식	n=1,556 82 a	n=502 269 d	n=377 205 c	n=105 183 c	n=509 144 b	n=65 171 bc	n=3,117 143	116.373***
	주 거	n=1,021 92 a	n=261 96 a	n=178 141 a	n=46 76 a	n=264 136 a	n=51 81 a	n=1,821 103	1.492
	광열수도	n=1,972 75 ab	n=521 105 c	n=380 114 c	n=115 103 c	n=569 84 b	n=75 63 a	n=3,632 86	28.843***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n=1,656 45 a	n=434 60 a	n=342 91 ab	n=105 138 b	n=475 52 a	n=74 57 a	n=3,086 57	4.049**

<표 8> 계속

연령집단	변 수	노인부부 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 가계	노인자녀 동거가계	친척노인부부 가계	여성노인 가계	남성노인 가계	합 계	F 값
중기 노인가계	피복 및 신발	n=1,179 75 a	n=371 108 ab	n=271 125 b	n=82 79 a	n=403 78 a	n=27 94 ab	n=2,333 87	6.795***
	보건의료	n=1,717 150 ab	n=415 127 ab	n=344 155 ab	n=101 103 a	n=481 129 ab	n=56 185 b	n=3,114 143	1.078
	교 육	n=143 14 a	n=80 272 c	n=267 167 abc	n=14 67 ab	n=253 219 bc	n=34 69 ab	n=791 161	6.988***
	교양오락	n=1,958 47 a	n=521 75 a	n=384 84 a	n=117 75 a	n=576 45 a	n=75 60 a	n=3,631 56	3.927**
	교통통신	n=1,984 129 a	n=521 303 b	n=384 303 b	n=117 278 b	n=583 199 a	n=75 173 a	n=3,664 189	28.758***
	기 타	n=1,963 287 ab	n=521 386 bc	n=384 411 bc	n=117 489 cd	n=571 200 a	n=73 567 d	n=3,629 313	9.510***
후기 노인가계	총소비지출	n=2,401 869 a	n=213 1,357 bc	n=369 1,528 c	n=17 1,357 bc	n=483 977 ab	n=63 1,134 ab	n=3,546 989	24.860***
	식료품	n=2,401 279 a	n=213 404 bc	n=369 457 c	n=17 331 ab	n=483 279 a	n=63 371 b	n=3,546 307	51.732***
	외 식	n=1,551 55 a	n=192 134 cd	n=337 131 cd	n=17 113 bc	n=390 90 b	n=60 159 d	n=2,547 79	73.364***
	주 거	n=986 101 a	n=137 59 a	n=166 98 a	n=4 27 a	n=212 135 a	n=20 67 a	n=1,525 101	1.078
	광열수도	n=2,396 66 a	n=213 79 a	n=369 115 b	n=17 131 b	n=470 68 a	n=59 87 a	n=3,524 73	30.961***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n=1,810 43 ab	n=195 39 ab	n=319 82 b	n=14 26 a	n=394 27 a	n=53 90 b	n=2,785 46	7.521***
	피복 및 신발	n=1,193 56 a	n=142 74 a	n=260 89 a	n=13 104 a	n=317 55 a	n=39 76 a	n=1,964 62	2.481*
	보건의료	n=2,138 136 a	n=182 232 a	n=334 135 a	n=17 363 a	n=419 105 a	n=41 105 a	n=3,131 138	5.531***
	교 육	n=163 10	n=43 69	n=228 264	n=1 3	n=200 226	n=25 118	n=660 171	8.334***
	교양오락	n=2,320 25 a	n=213 73 b	n=368 49 ab	n=17 17 a	n=471 37 ab	n=59 173 c	n=3,448 35	20.313***
교통통신	n=2,397 67 a	n=213 192 bc	n=369 220 c	n=17 132 ab	n=483 122 ab	n=63 157 bc	n=3,542 100	32.881***	
기 타	n=2,334 213 a	n=208 275 a	n=356 228 a	n=17 272 a	n=475 171 a	n=62 103 a	n=3,452 211	0.636	

*p<.05, **p<.01, ***p<.001

참고: 다른 문자로 표시된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지출 규모의 정도가 다른 가계들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는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교육, 외식, 보건의료, 피복 및 신발, 교양오락,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순으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자녀동거가계는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외식, 교육, 광열수도, 보건의료,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주거비 순으로 비중이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낮은 지출비중을 나타냈다.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는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육, 교통통신, 외식, 보건의료,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 순으로 그 비중이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여성노인가계의 경우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육, 교통통신, 외식, 보건의료, 피복 및 신발, 주거, 광열수도, 교양오락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남성노인가계 경우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타 집단과는 달리 교통통신비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타소비지출, 외식, 광열수도, 보건의료, 피복 및 신발, 교양오락,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에서 가장 낮은 지출비중을 보였으며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노인부부가계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이다.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비지출을 살펴보면 노인자녀동거가계가 가장 많은 소비지출 규모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친척노인부부가계, 남성노인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지출규모를 나타냈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식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비와 광열수도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은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피복 및 신발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보건의료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교양오락비는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 가계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은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지출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

계의 경우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 교통통신, 주거, 외식,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교양오락, 가구집기가사용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비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교육, 외식, 보건의료, 피복및신발, 광열수도, 주거,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노인자녀동거가계는 앞선 두 집단과 마찬가지로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외식, 교육, 보건의료, 주거, 피복 및 신발,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친척노인부부가계 또한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외식,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광열수도, 보건의료, 피복 및 신발, 주거,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가계와 같이 교육비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여성노인가계는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육, 교통통신, 외식, 주거, 보건의료,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냈다. 남성노인가계는 다른 집단과 달리 기타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식료품, 보건의료, 교통통신, 외식, 피복 및 신발, 주거, 교육, 광열수도,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에서 가장 적은 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초기노인가계와 중기노인가계에서와는 달리 보건의료비의 경우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와 기타소비지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비지출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월 평균 1,528천원의 지출을 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척노인부부가계,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 남성노인가계, 여성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기노인가계에서와 같이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적은 지출규모를 나타냈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식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주거비는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열수도비는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복 및 신발은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의

료비는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교육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통통신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소비지출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출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계에서는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 주거, 교통통신, 광열수도, 피복및신발, 외식, 가구집기가사용품,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에서 가장 낮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으며 노인부부가계는 초기, 중기, 후기집단 모두 교육비의 지출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는 식료품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 교통통신, 외식,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교양오락, 교육, 주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에서 지출의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가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다른 가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보건의료, 외식, 광열수도, 주거, 피복 및 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에서 가장 적은 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노인부부와 친척이 동거하는 친척노인부부가계의 경우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식료품보다 높게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 광열수도, 외식, 피복 및 신발, 주거, 가구집기가사용품,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에서 가장 낮은 소비지출 규모를 나타냈다. 여성노인가계는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교육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주거, 교통통신, 보건의료, 외식,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교양오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에서 가장 적은 소비지출 비중을 나타냈다. 남성노인가계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양오락, 외식, 교통통신, 교육, 보건의료, 기타소비지출, 가구집기가사용품, 광열수도, 피복 및 신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에서 가장 적은 지출비중을 나타내 다른 집단과는 다른 소비지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후기노인가계에서의 남성노인가계는 교양오락, 외식, 교통통신 등 사회활동을 위한 지출비의 비중이 높은 가계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을 분석할 수

있는 2004년도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가계구조를 소득 및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노인가계의 연령별, 동거유형별 경제구조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 검증의 분석결과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노인연령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부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소득은 초기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부채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사업소득은 중기노인가계에서 그 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초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소득의 경우에는 초기노인가계,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노후의 소득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취업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노인가계의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입의 차이 검증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부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경상소득과 부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후기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가계 경제수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변수에서 동거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부채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노인 연령에 따른 지출비목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노인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의 규모 분포를 보면, 식료품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교육비, 외식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에서 가장 적은 지출 규모를 보였다.

식료품비의 경우 전체 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지출규모를 나타내어 노인가계의 앵겔계수가 높음을 알 수 있어 노인가계의 생활의 질이 낮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비의 경우 초기노인가계에서 월평균 220,815원으로 가장 높은 지출 규모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후기노인가계, 중기노인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경우 전체 노인가계에서 비교적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계에서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증가현상과 고학력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비의 경우 노인 연령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노인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원의 높은 연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인가계에서의 의료비 부담 정도는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노인가계의 연령집단에 따른 동거유형별 소비지출 규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초기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은 소비지출 규모를 보여 노인가계의 앵겔계수가 높음을 시사하였으며 그 중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계에서 가장 많은 식료품비를 지출하였다. 외식비의 경우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의 경우 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열수도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 및 신발비와 보건의료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는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은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기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식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와 광열수도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은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피복 및 신발은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교양오락비는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 가계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는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마지막으로 기타소비지출은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나타냈다.

후기노인가계는 분석결과 총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외식,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변수에서 노인연령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초기노인가계와 중기노인가계에서와는 달리 보건의료비의 경우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와 기타소비지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목별 지출규모의 순서를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노인부부와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식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노인가계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다. 주거비는 여성노인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열수도비는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복 및 신발은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의료비는 친척노인부부가계에서 교육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오락비는 남성노인가계에서 높게 나타났고, 교통통신비는 노인자녀동거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소비지출은 노인부부와 미혼자녀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가계의 연령과 가계유형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노인가계에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득원은 근로소득이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른 소비지출 규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유형에 따른 검증에서는 타 가구원의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노인부부가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노인가계의 연령과 가계유형에 따른 경제구조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노년기를 맞게 될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올바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과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구조가 취약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생애주기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석 될 수 있으나 이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후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제고하며 또한 중·장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소득보장 방안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령자 취업장려정책을 통한 노후보장 기반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개인의 노후 소득보장 욕구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고용촉진 정책 등이 필요하며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는 방안이 요구됨을 제안한다.

둘째, 노인가계의 가계유형에 따른 가계의 경제구조 파악을 통해 각 가계가 가지는 경제구조의 특성과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과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계유형에 따라 각 가계의 경제구조 특징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재정관리와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가계가 자신이 속한 가계의 경제적 취약점을 스스로 판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노인가계의 유형에 따른 경제구조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수급정책의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가계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노인가계의 가계유형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노인가계를 위한 경제적 수급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다양화 되는 노인가계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공적차원에서 현금 및 세제지원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넷째, 노인가계의 연령과 가계유형 차이에 따른 노인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노인가계는 연령층과 가계유형에 따라 경제구조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가계의 라이프스타일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 노인가계의 유형별 경제구조 분석은 확립된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각 가계의 생활양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노인복지제도의 개선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가계의 연령과 가계유형의 차이에 따른 노인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노인가계의 연령과 동거유형에 따른 경제구조분석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규모의 자료를 이용해 노인의 연령대를 초기, 중기, 후기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동거유형에 따라 6개 집단으로 노인가계를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경제구조의 차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노인단독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하지 못했으며, 친척노인부부가계와 여성노인가계, 남성노인가계의 표본크기가 크지 않아 이들 가계가 가지는 경제구조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노인가계의 동거유형별 유형은 다양화되고 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가계를 연령과 동거유형에 따라 세분화 하여 경제구조 차이를 분석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며, 노인가계의 다양한 가계유형에 따른 경제구조 분석의 연구가 가계경제

학이나 소비자경제 분야에서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를 기점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고철기·박능후·김성희·이경은(1992). **노령계층의 소득보장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문일(1997). 노인의 경제적 복지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13(2), 191-223.
-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김영숙(2002). 도시 빈곤노인 가계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 일반가계, 일반노인가계 및 빈곤노인 가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3(3), 95-119.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영숙(2002). 노인가계의 소비패턴과 복지정책적 함의. **소비자학연구**, 11(1), 59-74.
- 김은효(2007). **제도상으로 본 노인의 개념**. 인터넷 법률신문, 2007, 09, 03일자 기사
- 모선희·강지현(2002). **55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적용에 관한 연구**.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박진영(2007). 노인가계의 재무전략유형별 재무성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25-44.
- 성영애·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6.
- 송순영(1999). **노인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9-09, 12.
- 성지미·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129.
- 양세정·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양정선·김영순(2004).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83-292.
- 오찬옥·양세화·양세정(2000). 노인가계의 주거비 지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0 겨울호, 47-60.
- 이영숙(2007). 노인의 취업성향에 관한 연구. -취업노인과 비취업노인의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85-298.
- 이선형·김근홍(2003). 노인 가계지출구조 분석을 통한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6집, 43-60.
- 이희숙·신상미(2003). 은퇴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103-116.

- 임정빈·김윤희(2000),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소비 지출비교: 1982~1998 -도시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63-176.
- 정순희·김현정(2001), 노인 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가계간 비교분석. **노인복지 연구**, 2001 여름호, 129-151.
- 황은애·이승신(1999), 도시가계의 소비지출과 소비지출패턴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8), 117-131.
-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 강이주·김영신·허경옥(1999), **가계경제학의 이해**. 학지사.
- 통계청(2004), 인구주택 총조사.
- 통계청(2004), 고령자통계
- 통계청(2005), 사회통계조사.
- 로앤비. www.lawnb.com
- 한국노년학회. www.tkgs.or.kr
- Harrison, B.(1986). Spending patterns of older person revealed in expenditure survey. *Monthly Labor Review*, 109(10), 15-17.
- Hitschler, P.B.(1993). Spending by older consumer - 1980 and 1990 compared. *Monthly Labor Review*, 116(5), 3-13.
- Quinn, J.F.(1987).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Beware of the man. *Review of Income & Wealth*(March), 63-82.

접수일 : 2008년 01월 14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4월 14일